

2023. 8. 5.(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서울역사편찬원장	이 상 배	413-9558
시사편찬과장	박 명 호	413-9539
관련 홈페이지	history.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외국인의 눈으로 서울의 변화상을 바라보다.

〈또 다른 서울 사람들〉 발간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6권 〈또 다른 서울 사람들〉 발간
- 1960~1990년대 서울에 살았던 외국인 6명의 눈에 비친 도심의 모습과 시민생활의 변화상을 구술로 담아내
-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은 시민청 ‘서울책방’에서 구입 가능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1960년대부터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서울의 변화상을 지켜본 외국인들의 회고를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6권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을 발간했다.

○ 서울역사편찬원은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5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총서를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한 제16권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지만 서울에 오랫동안 살면서, 서울의 변화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6명의 구술을 채록·정리하여 담은 책이다.
- 오늘날 서울은 세계적인 인프라와 문화콘텐츠를 가진 도시로 우뚝섰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 역시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다.
- 변화상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다양한 자료의 교차검증이다. 여러 자료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 또한 ‘또 다른 시선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서울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눈을 지닌 6명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 첫 번째 이야기는 박문수 전 서강대 이사장의 이야기이다. 그는 1941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고 1969년 처음 서울에 왔다. 그는 예수회 출신으로 1973년 한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85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또한 인권운동을 비롯해 빈민운동에도 활발하게 몸담았다. 당시 서울은 산업화로 모습이 빠르게 바뀌었다. 서울 곳곳에서는 철거민들이 발생하던 때였다. 그는 복음자리를 비롯해 천주교 도시빈민회 활동을 하면서 철거민들과 연대해 그들의 인권과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 두 번째 이야기는 도미이 마사노리 가나가와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1948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 1982년 처음 서울에 왔다. 그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그는 1987년 당시 서울에서의 6월 항쟁을 목격했다. 물론 1960년대 일본에서도 학생운동이 격렬했으며, 구술자 역시 그러한 시절을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당시 서울의 분위기가 도리어 익숙했다고 하면서 ‘20여 년이 지나서 (그 시절 일본의 분위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회고하였다.

- 세 번째 이야기는 시모카와 마사하루 전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의 이야기이다. 그는 1949년 일본 가고시마에서 태어났고 1975년 처음 서울에 왔다. 그는 서울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를 정형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를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그는 취재를 위해 서울에 왔다. 택시기사도 “독재타도”를 말하는 모습에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서울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6·29선언을 일본으로 송출하던 때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한다.

- 네 번째 이야기는 오수잔나 전 사물놀이 한울림 국제사업본부장의 이야기이다. 그는 195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태어났고 1980년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가장 기억나는 것으로 지하철 공사와 시위 현장을 꼽았다. 당시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나 주변 건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이 적었다. 주변 환경은 항상 위험이 많았고, 사고도 잦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공사는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이 ‘미덕’이었다. 한편 구술자는 서울이 살기는 좋지만 지나치게 높은 집

값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돈이나 아파트만 생각해서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가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에릭 웅크 서강대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1962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고 1986년 처음 한국에 왔다. 그가 본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이었다. 시장에서 양 담배를 숨겨놓고 팔던 모습, 낡고 허름한 하숙집, 번데기를 팔던 포장마차, 칙칙한 다방들, 여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술자 역시 그 시절을 경험했다. 한편 구술자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전셋 집 구하기였다고 한다. 또한 본인도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보통의 한국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나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회고하였다.

□ 여섯 번째 이야기는 장후세인 젠나무민복스 대표의 이야기이다. 그는 1971년 튀르키예 요즈가트에서 태어났고, 1993년 처음 한국에 왔다. 당시에는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기여서 가족들이 서울행을 말리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김포공항에 도착해 그가 본 서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편 2000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9·11테러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선교차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6권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ttps://history.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번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은 6명의 외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현대사의 급격한 변화상과 서울의 주거와 생활문화가 변화하는 모습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6권 〈또 다른 서울 사람들〉 표지

